

## 한국 여성상의(Jacket)의 변화 고찰 - 1945년~2000년을 중심으로 -

이 상 은\* · 김 영 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Variations on the Types of Korean Women's Jackets - emphasized on the period from the Liberation in 1945 to 2000 -

Sang-Eun Lee\* · Young-Ran Kim†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Lecturer,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2004. 10. 9. 접수; 11. 23. 채택)

#### Abstract

Korea had suffered the colon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Korean War from the invasion of the external circumstances. Such special situation made new influences on the clothing habits. The types of Korean women clothing could escape from the traditional style that had been maintained for thousands of years.

The foreign clothes for Korean women had undergone various changes from the Liberation in 1945. The jackets that had been introduced to Korea at the Enlightenment period had become popular outfits for men. The jackets made big influences on the changes such as the social advances for women from the times background of the Liberation. The jackets possess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changes in the diffusion of feminism and fashion.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investigate the forms, silhouettes, changes and structures of the jackets such as the locations of the collar, the sleeve, and the waste line. The process of the changes in the style of women jackets is also analyzed from the silhouette and the structure method. The development and changes will be understood of Korean women's jackets. The Korean women's jackets should also be examined further with the history of foreign clothing from now on.

The fashion to be introduced from important society cultural phenomena and the Western Europe has been reflected into the changes in the style of Korean female jackets. Also, dramatic changes in the style of clothing indicate that the society had experienced a great deal of changes. It is verified that foreign clothes have been interacted with the stream of times worldwide. After the Liberation, the female jackets become a uniform style which just followed the Western European style. However, a season trend has been announced from the SFAA since 1990. Since then trendy jackets have been detailed more with this chance.

**Key Words:** form(형태), jacket(재킷), silhouette(실루엣), collar(칼라), sleeve(소매)

## I. 서론

### 1. 연구의의와 목적

복식은 한 시대, 사회, 문화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통합체이다. 복식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기본요소로서의 문화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조 및 경제적 여건, 기후와 풍토, 생활풍습, 미의 관점, 종교문제 등에 따라 각기 독특한 복식문화를 형성하며 고유한 복식을 갖게 되고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전승되고 있다<sup>1)</sup>.

복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요인은 크게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화적 요인으로는 생활양식, 미의식, 종교와 도덕 등이 복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라 볼 수 있으며 타문화와의 접촉이나 집단내의 혁신에 의하여 계속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다. 문화의 여러 가지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복의 형태는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해밀턴(Hamilton)에 의하면 복식이란 하위문화 체계로서 특정한 문화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독특하지만 표현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 즉, 복식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적이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문화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 사회구조, 관념이 그것이다<sup>3)</sup>. 또한 종교적 이념과 도덕관념은 한 문화권의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복식의 형태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일제의 식민지와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생활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45년 8·15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여성복식은 수천 년을 지속하여 온 전통복식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잦은 서구 문명과의 접촉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사회적 안정은 의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고 유행의 다양한 변화

를 가져왔다. 상의(jacket)의 형태는 과도기와 양장의 도입을 계기로 입체화 되었으며 유행의 변화와 소재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재킷의 외관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sup>4)</sup>에서도 보이듯이 우리나라 여성양장은 해방이후 여러 변화를 겪어왔다.

또한 남성의 복식이던 재킷이 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널리 입게 되는 해방 후의 시대적 배경은 여성복의 재킷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변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sup>5)</sup> 페미니즘의 확산과 유행의 변화에 있어서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 양장 중에서도 상의인 재킷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의, 즉 재킷으로 한정된 것은 복식의 아이템과 품목이 다양하며 전통적인 한복에서 벗어난 대표적 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의(jacket)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실루엣 및 구성방법(칼라, 소매, 허리선의 위치)을 연구함으로써 여성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회·문화적 측면에 비추어 복식의 형태를 실루엣과 구성방법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우리 여성상의(jacket)의 변화와 발전 및 나아가 짧은 양장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여성상의(jacket)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복식의 경향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이에따른 여성상의(jacket)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변화를 복식의 외적인 특성인 실루엣과 구성요소(칼라, 소매, 허리선의 위치)로 비교연구하며 변화를 알아보고자한다. 실증적인 방법으로는 내용분석적 방법과 국내잡지 및 신문, 패션전문지 및 인터넷 검색을 조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본격적으로 양장을 입기 시작한 해방 후 1945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방 전에는 서양의 옷을 그대로 입는 김스걸스타일이거나 한복과 양장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의(jacket)의 변화가 전통적인 우리의 복식 형태를 벗어나 급변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sup>1</sup>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Kim  
Tel. +82-11-9002-0496, Fax. +82-43-236-7004  
E-mail : youngna71@hanmail.net

## II. 이론적 고찰

### 1. 시대적 배경

#### (1) 1945년 이후의 패션

1945년 8·15해방 이후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때의 복식은 전통양식으로의 회귀를 예상할 수도 있었지만 미군정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친미적 분위기에 의하여 여성복식의 서구화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몸매에서 벗어났지만 일재의 잔재로 인한 밀리터리 스타일은 불가피하게 보급되었는데 해방 후 돌아오는 교포들과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어깨에 솜 방식이나 패드를 높게 넣은 군복풍의 슈트와 군복에서 응용한 국방색의 의상들이 유행하였다 <그림1>. 미국으로부터 섬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구호물자가 전해지면서 양복바지, 부인양장, 스타킹, 구두 등이 들어왔다. 미국물자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여성의 복식은 서구 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갔다. 점차 퍼프 슬리브의 재킷과 폭넓은 플레어스커트 스타일로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2>.

1946년부터는 여학교들이 새로운 교복을 제정하여 상의는 더블 여밈(double breasted) 이면서 양 옆에 주머니 두개와 칼라 옆에 교표를 다는 주머니가 있었다. 대부분의 교복은 플레어스커트, 밀이 터진 바지, 더블의 상의(double breasted)와 백색의 칼라가 달린 상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 당시 양장의 옷감은 서지(serge), 낙하산감 등을 사용하였다.

1948년 이후 남성들은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T룩이 유행하여 어깨가 넓고 깃은 가슴을 메울 만큼 커다란 넓이의 재킷에 홀태바지를 입었다. 이러한 양복의 마카오시대는 여성의 속옷을 빨강으로 물들여 입을 정도로 빨간색이 대유행하였다. 또한 “婦人”의 표지에는 여성의 빅 코트(big coat) 형태인 테일러드 칼라의 외투도 나타났다 <그림3>.

#### (2) 1950년대 패션

1950년대는 양장의 대중화로 50년대 후반 우리나라 패션 가에도 도약을 기약하는 기풍이 조성되

고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맞추어 패션쇼도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1955년 6월 디자이너들의 친목단체인 대한복식연우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나일론과 합성섬유가 등장하였고 1951년 전쟁의 부산물인 반투명의 반투명한 나일론 원단의 낙하산감으로 만든 블라우스는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칼라는 주름을 잡아서 만든 곱창모양이 유행하였다. 대구나 부산등지의 피난지에서는 소규모의 양장점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때 유행하던 옷감은 유통 소재로 만든 블라우스나 드레스도 있었다. 1954년 을지로 3가 수도 극장에서 상영된 ‘젊은이의 양지’는 피난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크게 히트하였다. 넓게 부풀린 피트 앤 플레어의 드레스에 목을 높이 세운 하이넥 칼라, 살짝 세운 윙(wing) 칼라가 인기가 있었고 특히 윙 칼라는 1954년 TV로 생중계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2세 취임식 때 여왕이 착용한 정장 드레스 디자인이어서 더욱 유행하였다. 이 외에도 조그만 피터팬 칼라, 앞가슴에 촘촘히 tuck을 잡



<그림1> 여경의 제복 밀리터리 룩, 사진으로 보는 뉴스, 1946년 유수경 (1991). 여성복식의 변천, 일지사, p.258



<그림2> puff sleeve의 tailored jacket, 1946년 유수경 (1991). 여성복식의 변천, p.259



<그림3> tailored collar의 코트, 婦人, 1948. 12 유수경 (1991). 여성복식의 변천, p.259

고 어깨에서 패드를 떼어낸 돌면 소매, 프렌치 콜 로네이션 소매, 7부 소매, 1955년에는 7부 바지, 페달푸셔(petal pusher)바지, 양말의 윗부분을 한번 혹은 두 번 두겹게 접은 백색의 바비삭스(bobby socks), 흑과 백의 배색이 된 새들(saddle) 구두가 유행하였다. 야전 군복의 영향으로 모자가 달리고 너럭한 플레어가 들어간 후드(hood) 코트도 유행되었다. 여성잡지인「여원」은 55년 12호부터 여자의 의상사진과 해설을 곁들인 ‘모드’란을 기획하여 패션 화보를 전문화하였다. 여배우 최은희, 노경희씨 등을 모델로 한 패션화는 더욱 유행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56년 반도 호텔에서 노라노 씨가 한국 최초의 패션쇼를 열기도 하였다. 1956년 영화 “자유부인”에서 여주인공이 착용한 벨벳 소재로 만든 한복의 영향으로 양장 한복을 불문하고 벨벳으로 만든 의상이 대유행하기도 하였다.

유행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프린트 무늬와 노슬리브 드레스, 코트, 맘보바지, 차이니즈 드레스, 홍콩수입 벨벳원피스 드레스와 코트는 이 시대를 풍미하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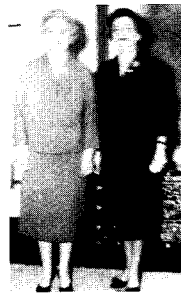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유행의 선구적 역할이었던 영화의 주인공인 ‘애수’의 비비안 리의 군복형 정장과 ‘로마의 휴일’에서 여주인공 오드리헵번의 짧은 머리와 타이트한 맘보바지로 영화의 상륙과 더불어 서울의 명동거리를 휩쓸었다.

특히 심플한 스타일의 회색 모직 투피스 정장<그림4>은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34년간 즐겨 입던 옷으로 1958년 최초의 국산모직(제일모직)을 이용하여 우리 솜씨로 만들었다. 안감은 실크이며 애국심을 상징하는 무궁화 무늬를 특별히 넣어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특별한 한국 사랑을 엿 볼 수 있다. 또 역대 영부인중 가장 양장이 잘 어울렸다는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인 공덕귀 여사는 관리가 좀 힘든 린넨 소재의 정갈한 양장을 착용하였다<그림5>. 당시 명동은 양장점의 집단지였는데 ‘국제양장사’를 비롯하여 송옥, 아리사, 엘리제, 마드모아젤, 노블, 영광사, 한 양장점, 보그 등이 양장점의 전성시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 때는 자루 형태의 색 드레스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3) 1960년대의 패션

60년대는 우리나라가 거국적으로 세계무대를 향해 발돋움하는 회복의 시대로 급진적인 사회변하는 국내 패션 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시대적으로는 4·19의거, 5·16혁명,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계획, 1963년 제3공화국, 1964년 비상계엄령 선포, 1969년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의 달 착륙 등이 주목 할만 하다. 단조로운 스타일을 커버하기 위한 액세서리의 과용으로 액세서리의 전성시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reversible) 코트, 핫팬츠, 주름치마가 유행하는 가 하면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한 가수 윤복희씨의 미니스커트가 국내에 선보이기도 하였다<그림6>. 미니의 열풍은 전국을 휩쓸었고 68년을 최고 절정으로 무릎 위 30cm까지 올라갔으며 마이크로라는 초 미니가 등장하였다.

패션업계에서는 1961년 대한 복식디자이너 협회 결성, 1961년 최초의 스타일학과(국제복장학원)



<그림4> 프란체스카여사의 수트, 디자인 미성 양장점, 1958년 유행경 외 6인 (2000), 우리 옷 이천년, 문화관광부, p.138



<그림5> 공덕귀 여사의 수트, 디자인 한 양장점, 1958년 유행경 외 6인 (2000), 우리 옷 이천년 p.139



<그림6> 미니 스커트를 입은 가수 윤복희, 월간 패션지 의상의 창간호 (1968년 12월). 디자이너 박윤정.

창설, 1962년 한국 복식디자이너 협회 주최 제1회 디자인 콘테스트 실시, 1963년 최초의 차밍스쿨(국제 복장학원), 1967년 최초의 한·일 패션쇼(최경자), 1968년 첫 패션 전문지 '의상' 발간 등의 일이 있었다<sup>8)</sup>.

#### (4) 1970년대 패션

70년대에는 국제 경제의 안정과 활발한 무역정책으로 섬유산업이 호황을 이루어 이것이 우리나라 무역의 기초가 되었다. GNP가 상승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패션에 대한 의식 변화는 패션 산업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73년의 1차 오일쇼크와 '77년 100억불 수출 등의 사건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는 디자이너가 발표하는 대로 유행을 추종하는 데 급급하였던 것에 비하여 1970년대는 무릎을 약간가리는 치마 길이의 샤넬라인과 3M이라는 미니, 미디, 맥시, 청바지, 판탈롱, 핫팬츠 등 여러 패션이 혼합된 시기로서 전문가들은 이때를 유행의 춘추 전국 시대라 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대량 생산된 기성복의 영향으로 패션의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나팔바지와 청바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유행 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집시 스타일 1975년 말 부터는 블레이저 재킷, 사파리재킷, 등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기성복 패션이 시작 되면서 젊은층이 주도적 역할로 캐주얼웨어가 붐을 일으켰고 1971년의 핫팬츠, 1972년의 백바지 스타일의 진, 1973년은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디자인, 1974년의 판탈롱 슈트와 재킷, 1975년의 월남치마, 1976년의 박 라펠, 1977년의 레이어드룩, 니트조끼와 1978년의 해적, 핑크룩 등이 시대별로 유행을 이끌었다.

#### (5) 1980년대 패션

1980년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컴퓨터, VCR(Video Cassette Recorder), CD(Compact Disk), CAD(Computer Aided Design)의 등장은 새로운 기술혁신의 문을 열었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GNP의 성장과 함께 보급된 컬러 TV 방영으로 인해 스타들의 패션이 직접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

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 패션 잡지인 '뎃'의 창간과 여성 교양지의 대거 출현도 패션의 흐름을 유행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가져왔으며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되었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은 패션의 캐주얼화를 본격화하였다. 1980년대 중반의 패션은 어깨를 크고 둥글게 살려 입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그림7> 80년대 후반에는 엘리건트한 캐주얼이 등장하여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바디 컨셔스 라인과 50년대의 복고풍 실루엣으로 여성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부각되었다. 또한 프렌치 핑크가 새로운 모드로 등장하였다. 여성의 원피스는 30년대와 4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로우 웨이스트에 전체적인 흐름은 직선적이면서도 정숙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어깨가 편안하고 웨이스트도 자유롭고 편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중반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성을 강조하는 다양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패션을 추구하는 현상이 급속히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동안의 획일적인 대중사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레이어드룩은 여러 방법으로 겹쳐 입는 코디네이션 패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8>. 어깨를 패드로 강조한 정장스타일과 다양한 디자인의 팬츠가 크게 유행하여 조드퍼즈, 키트오브 팬츠(cutoff pants) 일명 '디스코 바지'와 통바지 등 다양한 스타일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그림9>. 84년 말부터 여성복의 매니쉬(manish) 현상으로 짧은 키트와 락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장 화장과 남여 의복을 겹쳐입는 앤드로지너스룩이 등장하였다<그림10>. 여피의 등장과 환경문제의 대두로 에콜로지 룩으로 자연을 주제로 한 디자인과 색상이 유행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세계화의 바람과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명제아래 89년 SFA(SFAA의 전신)를 결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미술의상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sup>9)</sup>.

#### (6) 1990년대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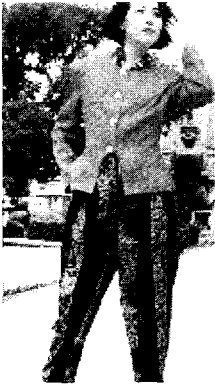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벌리즘의 대두로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형식의 디스플레이된 디자이너들의 쇼 윈도우와 상품을 볼 수 있으며 같은



〈그림7〉 블루진의 유행, 멋, 1987년 4월



〈그림8〉 코디네이션 패션, 레이어드룩, Fashion Today, 1994년 4월



〈그림9〉 디스코 바지의 유행, 멋, 1990년 7월



〈그림10〉 앤드러지너스룩, 멋을 아는 생활, 1993년 fall <출처> 유희경 외 6인 (2000). 우리 옷 이천년, 문화관광부, p.164

패션을 보고 같은 패션을 소비하는 ‘국제적 패션 시장’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90년대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 시기는 ‘탈 유행’의 시대로 다양한 트렌드(trend)의 패션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보인다. 90년대 초반에는 미래를 꿈꾸던 40년대의 파리 느낌의 도시적인 캐주얼풍의 개성적인 조화를 이룬 스타일과 부피가 큰 파커 같은 큰 상체에 몸이 밀착되는 스트레치 팬츠를 많이 착용하고 바지통이 넓은 판탈롱팬츠, 비치는 소재와 긴 길이의 조끼, 중고 감각의 실용적인 스타일의 캐주얼한 세퍼레이츠 룩(separates look), 자연지향의 에콜로지(ecology), 민속풍의 디테일도 빠지지 않았다. 90년

대 후반에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긴 상품이 선호 되었다. X세대와 미시족이 출현하였으며 1992년 서태지의 등장은 인기연예인=패션아이콘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였다. 또한 스트리트 패션의 강세로 힙합(Hip-Hop)패션이 영향력 있게 작용하였다. 새로운 판매 방식의 급증으로 우편 판매, 인터넷 주문에 의한 소비가 증가하였다. SFAA(Seoul Fashion Artist Association)는 '90, '91 S/S 시즌 컬렉션을 열면서 매년 2회 시즌별 트렌드 컬렉션으로 한국의 트렌드(trend)를 제시하였다.

90년대의 연도별 유행아이템은 90년대 초의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미니와 미디의 레이어드룩, 93년에는 롱스커트와 미니스커트가 함께 유행하였고 활동적인 슬랙스 슈트가 더 일반적이었으며 레이스로 된 조끼와 란제리 룩, 1990년대 초반의 배꼽티, 골반바지, 초미니 핫팬츠, 프렌치 캐주얼, 중반의 아디다스 라인이 들어간 스포츠 룩과 스쿨걸 룩, 후반의 비대칭형의 아방가르드 룩(avantgarde look)과 IMF 이후의 베이직 한 클래식 스타일들 등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 하였다<sup>10)</sup>.

의류나 패션의 선택 기준은 단순한 유행의 모방이나 트렌드의 추종이라는 측면에서 점차 다양한 패션경험과 풍부한 패션정보를 배경으로 자신의 개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변화하여 갔다. 즉, 과거의 무조건적인 유행의 추종경향에서 이탈하여 스스로의 패션을 선택하고 창조해 가려는 이른바 “패션데모크라시(fashion democracy)”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소재 또한 레이스와 속이 비치는 길이가 긴 베스트가 유행하였으며 자연 지향적인 에콜로지와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된 배우나 가수들을 중심으로 영패션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7) 2000년 패션

2000년대에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감각의 경향으로 고정적인 패션보다는 개성적인 표현과 더불어 자유로운 스타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2)</sup>.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탄생된 컴퓨터와 정보 기술, 전자, 대중매체 등과 함께 패션의 경향은 사이버 패션과 키네틱 패션, 친환경적 패션, 생산방식

의 첨단화와 신소재의 개발로 최첨단 테크놀러지로 인간과 연결하여 실험성 있는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패션경향은 한마디로 주제적 패션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패션 산업과 패션의 소비문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의상에 부가하여 다른 아이템들을 포함하는 토탈 패션을 중시하는 시대로 이동해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지향과 함께 월드유틸리티를 강조하는 등 정보화 사회답게 인터넷이나 케이블 TV등을 비롯한 다양한 패션정보 매체의 발달로 더욱더 많은 고급의 패션 정보로 빠르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13)</sup>. 이러한 점은 마우스를 클릭하여 나만의 옷을 만들어 주는 패션 사이트들로 정장이나 셔츠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춤 서비스하는 시점에 까지 도달하여 있다<sup>14)</sup>.

## 2. Jacket 실루엣에 따른 종류

재킷은 상의의 총칭으로서 길이는 힙 부분 까지, 혹은 그것보다 짧고 보통은 앞트임으로 소매가 달려 있는데, 폴오버 형식의 것과 소매가 없는 것이라도 재킷이라고 부른다. 원래 남성복 전용으로서 본격적인 여성용으로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sup>15)</sup>. 형태에 따라 재킷을 구분한다면 크게 세 가지의 실루엣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또한 세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킷으로 구분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형태미의 표현으로서의 실루엣은 의복의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작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실루엣은 다음과 같다.

### 1) 박스(Box) 실루엣

박스 스트레이트 실루엣(box straight silhouette) 또는 H라인 실루엣으로 허리선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딱딱하고 직선적인 느낌을 주는 실루엣을 말한다. 시스 실루엣(sheath silhouette), 튜블러 실루엣(tubular silhouette), 엠파이어 실루엣(empire silhouette), 등이 있다<sup>16)</sup>.

재킷에 나타난 직선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재킷의 종류로 설명 할 수 있겠다.

### (1) 브리티시 재킷(British jacket)

영국풍 재킷의 총칭이다. 해리스 트위드나 아일랜드 트위드 등의 트위드 천, 또는 플란넬 등 마치 영국을 연상케 하는 두꺼운 컨트리 소재로 된 테일러드한 스포츠 재킷을 말한다. 아이리시와 브리티시 등 영국 풍 패션을 말한다.

### (2) 오피서 재킷(Officer jacket)

군복풍의 재킷. 오피서는 “부관 · 장교 · 사관”이란 뜻으로, 흔히 세운칼라, 검정색, 금단추가 붙은 위엄 있는 스타일이다. 보나파르트 재킷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3)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Single breasted jacket)

가슴 여밈에 한 줄로 단추가 달린 클래식한 재킷으로, 대개 허리가 맞게 되어 있고 네모진 칼라에 긴 소매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 (4) 메이저레트 재킷(Majorette jacket)

군복풍의 재킷이란 뜻으로 메이저레트는 여기에서 “여성군악대장”이라 번역된다. 1982~83년 추동 밀라노 컬렉션에서 보여준 작품의 하나로, 금단추가 달린 더블 브레스티드는 매우 화려한 군악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 (5) 밀리터리 재킷(Military jacket)

밀리터리란 “군대”의 뜻으로, 군복에 쓰이는 디테일 디자인 재킷이다. 즉 에플렛이나 플랩 앤드 버튼 다운 포켓 등을 취한 재킷의 총칭이다.

### (6) 카디건 재킷(Cardigan jacket)

단순한 휴식복, 혹은 스포츠용 재킷이다. 칼라가 없고 긴 소매로 되었으며 앞을 트고 입는 것과 단추로 여미도록 된 것이 있다. 흔히 니트로 만들어지고 여러 직물로 만들 수 있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카디건백작(1797~1868년)이 애용한데서 유래되었다.

### (7) 네이벌 메스재킷(Naval mess jacket)

해군의 메스재킷이다. 여름에 쓰이는 허리길이의 formal한 상의를 메스재킷이라 한다. 리넨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해군의 특유한 네이비블루 천

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메스재킷은 원래 해군이나 육군의 제복이었던 것인데, 이것은 옛것이 복고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캐주얼한 상의의 하나로 인기가 있다.

#### (8) 리캐터 재킷(Regatta jacket)

리캐터는 보트 레이스나 요트 레이스의 뜻으로, 본래 그런 선수들의 유니폼으로 쓰이던 경쾌한 상의를 가리킨다. 즉 볼레이지와 같은 종류의 스포츠 재킷으로 클래식한 맛을 특징으로 한다. 분명한 스트라이프나 체크를 섞은 것이 많이 보인다.

### 2) 아워글래스형(Hourglass)실루엣

아워글래스형의 실루엣은 신체의 허리 부분을 꼭 맞게 하고 상하를 넓히는 실루엣으로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로 허리선을 강조를 통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프린세스라인 실루엣(*princess line silhouette*), 크리놀린 실루엣(*crinoline silhouette*), 미나레 실루엣(*minaret silhouette*) 등이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허리선을 강조하는 실루엣을 표현한 재킷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블라우스 재킷(Blouse jacket)

웨이스트 길이나 그보다 약간 긴 길이의 짧은 상의의 총칭. 쇼트 재킷, 점퍼라고도 한다.

#### (2) 프린세스라인 재킷

프린세스 라인을 넣어 몸의 윤곽선을 강조하는 재킷을 말한다.

#### (3) 아라빅 재킷(Arabic jacket)

아라비아 스타일의 재킷을 말한다. 어깨를 살리고 재킷 길이를 약간 길게 하여 굽은 벨트로 허리를 조여 밀리터리풍 디자인으로 한다. 대개 머리에는 아라비아인들의 터번으로 코디네이트 한다.

### 3) 삼각형(piramid), 역삼각형 실루엣

신체의 부분 중 아래로 갈수록 도련을 넓게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반대로 어깨를 강조하고 과장하며 도련이 좁아지기도 하는 형태로 텐트 실루엣

(*tent silhouette*), 트라페즈 실루엣(*trapeze silhouette*), 테이퍼드 실루엣(*tapered silhouette*) 등이 있다.

아와 같이 삼각형 혹은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재킷에 표현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기모노 재킷(Kimono jacket)

일본의 기모노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재킷이다. 재패니스 패션이나 오리엔탈 포크풍의 동양적인 패션의 대두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기모노를 모티브로 취한 디자이너가 많아지고 있지만, 다카다 겐조는 1982~1983년 추동 컬렉션에서 선뜻 기모노 이미지인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2) 바스크 재킷(Basque jacket)

어깨를 과장되게 크게 강조하고 웨이스트를 꼭 조이도록 디자인 된 1950년대 풍의 분위기를 특징으로 한 재킷이다. 바스크란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의 지방 이름이며, 그곳 사람들의 의복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3) 주트 재킷(Zoot jacket)

어깨 폭이 극단적으로 넓고 길이가 팔꿈치 정도 되는 험렁한 실루엣을 특징으로 한 재킷이다. 1940년대 초기 미국에서 유행한 주트 슈트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것으로, 1940년대 록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현재는 댄디룩의 영향도 있어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게 되었다<sup>18)</sup>.

#### (4) 스펜서 재킷(Spencer jacket)

19세기에 유행한 타이트한 재킷을 말한다. 앞을 트고 험의 옆을 모피로 두른 것도 있다. 최근 파이어에서 유행되었을 때 볼레로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스펜서 백작(1758~1834)이 즐겨 착용한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 (5) 마이크로 재킷(Micro jacket)

극단적으로 작게 만든 재킷을 말한다. 대부분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매우 짧은 기장과 심플한 스타일링을 특징으로 한다. 카디건형이나 블루종형등 스타일도 다양하며, 이러한 것을 마이크로 톱이라고도 부른다.



### (6) 진 재킷(Jean jacket)

데님제의 경쾌한 재킷의 총칭이다. 전통적인 것은 허리길이 정도이고 양팔에 패치나 플랩 포켓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독특한 트리플 스티치를 특징으로 한 단추물림으로 되어 있다. 패션화의 경향에서 최근에는 각종 재킷의 디자인을 취한 것이나 코트 타입도 있다.

## 3. 복식의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

복식의 형태를 인체와 복식의 관계에서 볼 때 구조적 중심이 되는 것은 신체에서 목, 몸통, 팔, 다리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조형 부위도 넥(neck), 슬리브(sleeve), 웨이스트(waist)가 된다<sup>19)</sup>.

### (1) 넥라인 및 칼라

목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이면서 의복을 걸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복 구조상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다. 넥라인은 선의 영어식 표현이며 의복에서는 목 부분에 해당하며 여기에 천의 크기나 형태를 달리하여 달아주게 되는데 이것을 칼라(collar)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옷깃이며 한자로는 금(衿, 襟), 령(領)으로 표기된다. 이 의미는 목둘레 부분의 위치를 나타내며 의복의 목둘레에 선을 두른다는 뜻과 또 다른 천을 덧붙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금(衿, 襟)이라는 것은 앞의 옷깃이며 령(領)은 목 뒤의 목둘레선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목 부분의 장식은 기능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의 복식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직선과 곡선의 형태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칼라의 기능성은 높이를 높게 하여 목을 보호하는 방어적인 목적과 보온을 위한 목적, 또는 높은 칼라로 목을 감싸므로 허약함을 은폐할 수 있어서 권위적인 표현성의 특징이 있다 하겠다. 칼라를 기능적인 목적으로 분류하면 플랫칼라(flat collar), 슬라이트 롤 칼라(slight roll collar), 턴 다운 칼라(turn down collar), 스탠드 칼라(stand collar)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적인 분류로는 테일러드 칼라(tailored collar), 너치 라펠칼라(notched lapel collar), 셔츠칼라(shirt collar), 스포츠 칼라(sports collar), 보우칼라(bow collar), 타이칼라(tie collar), 스탠드 업 칼라

(stand up collar), 자보칼라(jabot collar), 프릴칼라(frill collar), 네크밴드 칼라(neck band collar), 팬 칼라(fan collar)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칼라는 의복에서 작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외형적으로 복식의 통일미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얼굴과 인접하여 있어서 개성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칼라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을 함축하는 미의식의 반영체 라고 볼 수 있다.

### (2) 소매 (sleeve)

소매는 의복의 구성에서 볼 때 사지(四肢) 중 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능성으로서의 소매의 역할은 보온을 유지하고 외부환경이 주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진 실용성도 포함되어 있다. 소매의 형태는 의복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소매의 미적 표현은 형태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매의 크기로 써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폭이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으며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어떤 부분을 조이거나 부풀리고 늘어뜨리며 디테일을 첨가하여 장식성을 부여하여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소매의 형태는 크게 길에 소매를 다는 형태와 길과 소매가 연결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소매를 길에 다는 형태를 셋 인 슬리브(set in sleeve)라 하며 원형의 전개에 따라 다양한 소매의 변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매에는 타이트 슬리브(tight sleeve), 퍼프 슬리브(puff sleeve), 비숍 슬리브(bishop sleeve), 벨 슬리브(bell sleeve), 케이프 슬리브(cape sleeve), 캡 슬리브(cap sleeve), 랜턴 슬리브(lantern sleeve), 카울 슬리브(cowl sleeve), 레그 오 머튼 슬리브(leg-o-mutton) 등이 있다. 길과 연결하여 구성되는 소매에는 래글런 슬리브(raglan sleeve), 요크 슬리브(yoke sleeve), 드롭 숄더 슬리브(dropped shoulder sleeve), 기모노 슬리브(kimono sleeve) 등으로 나타나며 소매를 달지 않는 슬리브리스(sleeveless)도 있다<sup>20)</sup>.

이와 같이 소매의 형태는 그 형태에 따라 부드러울 수도 있으며 권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소매가 지닌 미적인 특징이면서 복식 전체에 미의 통일성을 주는 요인이 된다<sup>21)</sup>.

### (3) 허리선의 위치(position of waist line)

허리는 인체의 중앙에 위치하며 몸통에서는 골반 위쪽의 들어간 곳으로 상하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작을 원활하게 하는 곳으로 의복의 다양한 표현성을 결정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허리선은 하의를 입어 고정시키는 위치로 제2의 어깨 역할을 한다<sup>22)</sup>.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유연한 허리선을 가지고 있어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기도 하다. 허리선 위치의 높고 낮음과 피트성에 따라 의복이 주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Ⅲ. 한국 여성상의(jacket)의 변화

### 1. 시대별 상의(jacket)의 고찰

#### (1) 해방 후 1945년-1959년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패션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 해외에서 돌아온 많은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은 의상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마침 시대적 배경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높은 교육열로 여자 대학생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히 의복도 한복보다는 양장을 입는 층이 눈에 띄게 늘어갔다. 1947년 Dior의 New Look은 여자 대학생들의 의복을 우아하고 여성적인 silhouette 으로 급변하게 하였다. 전후(戰後)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collar는 스포츠 칼라로서 단조로우면서도 활동하기에 편안한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어깨의 각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의생활은 침체되어 일반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군복을 응용한 의복을 착용하였고, 1953년의 empire style은 high waist의 높은 절개선을 많이 썼고 over coat까지 yoke를 만들고 주름을 잡고, 뒤에 flare를 많이 넣은 형식이 유행되었다. jacket의 상의길이는 허리에 닿을 정도이고 둥근 어깨선으로 dolman sleeve, raglan sleeve가 유행되었고, 소매 끝에는 넓게 cuffs를 달았다. 1954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패션쇼가 개최되었다. 또한 유행에 변화가 많았던 해로서 H line과 A line 특히, 여대생들은 tailored suits가 한창 유행하였다.

#### (2) 1960년대

1960년경 우리나라는 4·19, 5·16 혁명으로 인하여 패션계는 정지되었다가 1963년경부터 서서히 재부활을 하게 되어 여성복식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생활 변화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차츰차츰 옮겨져 자연히 불편한 한복보다는 편한 양장을 입는 것이 많았으며 중·노년층에선 거의 외면당하고 있었던 양장은 중년부인에서 노인층 까지도 입게 되었다. 제대로 갖추어진 양장은 아닐 지라도 한복을 벗고 간편한 블라우스의 차림이라도 하게 되다. 1960년경의 상의는 짧고 여밈 분이 없는 재킷이 유행되었다. 1960년 패션의 중점적인 형태는 waist를 다시 살리면서 belt를 강조한 tunic 길이의 재킷과 볼륨을 살린 소매였다.

#### (3) 1970년대

71년 Paris 춘하 collection에서는 작업복 style의 상의와 노동복 풍의 mode가 눈에 띄어 활동적이며 강한 느낌의 매력을 보였다. 1970년 파리의 mode와 때를 같이 하여 다양한 design이 범람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옷의 길이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사람들은 유행과 체형을 반영하여 각기 개성과 특색을 살려 알맞은 옷의 길이를 정하게 되었다. 70년대는 jean style이 유행되었는데 1974년부터는 sporty 한 차림의 jean의 상의를 많이 입었으며 상의의 깃은 넓은 편이고 puff sleeve에 길이는 짧은 편이었다. 1975년 tailored suits two-piece를 많이 입었는데 상의 깃은 좁아지고 길이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76년엔 거의 남자 양복과 흡사한 tailored suits가 나왔다. 1977년 상의 깃은 좁고 길게 되었으며 길이가 길어졌다<sup>23)</sup>.

#### (4) 1980년대

초반의 패션 경향은 어깨와 몸 전체의 윤곽선을 크게 부풀리는 sack dress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80년대 중반의 패션 실루엣은 어깨를 크고 둥글게 살려 입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80년대 후반에는 엘리건트한 캐주얼이 등장하여 날씬한 몸매를 강조한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 라인과 50년대의 복고풍 실루엣으로 여성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부각되었다. 바디 컨셔스의 피트 앤 플레이어

(fit & flare)라인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패드로 어깨를 강조한 정장스타일과 캐주얼 스포츠 웨어가 동시에 유행하였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녀 구별 없이 마음대로 옷을 입어 '남녀 공용의 의복'으로 이야기 되는데 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성 역할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성을 초월한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라 하겠다.

### (5) 1990년-2000년

90년대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90년대 초반에는 미래를 꿈꾸던 40년대의 파리 느낌의 도시적인 캐주얼풍이 개성적인 조화를 이룬 스타일과 부피가 큰 파커 같은 큰 상체의 봄에 밀착되는 타이트한 스트레치 팬츠들을 많이 착용하였고 90년대 후반에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긴 상품들이 선호되었다. 1990년대 후반의 비대칭의 아방가르드 룩(avangarde look)과 IMF 이후 나타난 베이직 한 클래식 스타일(classic style)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sup>24)</sup>.

20세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결정적으로 개인주의의 확립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다.

## 2. 실루엣 및 구성요소의 변화

### (1) 실루엣

1945년 이후 양장이 보편화되면서 1946년경 서양의 영향으로 military style<그림11>의 옷이 유행하여 어깨에는 pad를 넣기 시작하였다. 1949년 Dior가 1947년에 발표한 new look의 영향을 뒤늦게 감시 받아들여 아워글래스 형태가 나타났다. 1950년 6·25사변으로 여성들은 활동이 편한 의상을 착용하게 되어 인체를 강조하는 형태보다는 직선적인 박스 실루엣 이었다. 1953년 소개된 princess line의 실루엣과 1955년 Dior의 A line silhouette이 도입되었으며 1956년 H line silhouette이 우리나라에 소개 되었다. 1957년에는 Dior이 1956년에 발표한 Y line이 소개되었으나 H line이나 Y line은 A line 만큼 널리 유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림12>는

등글고 크게 강조된 어깨와 잘록한 허리로 뉴욕의 형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58년에는 sack line, empire line등 많은 silhouette이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1960년 초반은 서양의 fashion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으로 box형이 나타났으며 1961년은 box형이 대부분이었다. 1962년은 princess line silhouette의 유행으로 점점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여유 있는 선으로 변화되었다. 1963년은 trapeze line과 H line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 중반은 semi-fitted한 silhouette<그림13>이 유행되었다. 1966년에는 princess line을 사용한 tight한 재킷과 straight한 style이 주된 경향이었다. 1968년에는 double box형의 suits가 유행되었다. 1970년대 초반은 fitted한 silhouette이 주된 경향이었으나 1975년에 들어 점점 loose 해지면서 부드럽고 유연하였다<sup>25)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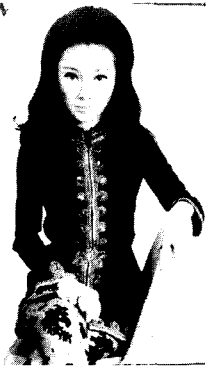
80년대는 몸의 굴곡을 낭만적으로 강조하는 복고적 경향으로 어깨는 둥근 pad를 넣어 부풀리며 허리를 줄라매는 특징을 보인다. 85년에는 봄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여성스러운 옷차림과 86년에는 페미닌 무드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강조하였으며<sup>27)</sup> 80년대에는 low waist의 영향으로 어깨가 편안하고 짧은 볼레로형의 재킷<그림14>과 여성복의 매니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후반이후 tent silhouette, box silhouette의 어깨가 강조된 재킷<그림15>과 <그림16>과 같이 짧은 재킷은



<그림11> 국방색의 밀리터리룩, 1946년  
우리옷이천년(2002)  
문광부, p.135



<그림12> Suits  
女苑, 1957. 4월



<그림13> 윤복희(1960년대 재현) Vogue Korea, 2002, Jan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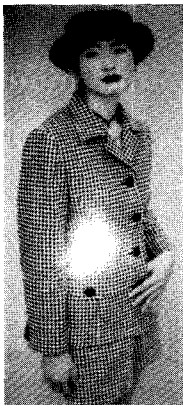
<그림14> 멋 1987. 4월 우리웃이친년 (2002) 문광부, p.161



<그림15> 텐트 실루엣, 박스 실루엣의 재킷 멋, 1988. 10월,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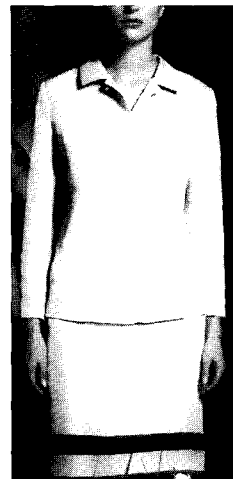
<그림16> 짧은 재킷 멋, 1988. 10월, p.77



<그림17> 잔잔한 체크무늬 재킷 마리꼴레르, 1993, 3월, p.105



<그림18> 99년 서울 밀레니엄 컬렉션(진태옥) Vogue Korea, 1999, June, p.255



<그림19> Blind Jacket Vogue Korea, 1999, 12월, p.155

slim한 silhouette과 부드러운면서도 뚜렷이 강조된 어깨의 형태를 보여준다. 1950년대의 마릴린 먼로를 연상케 하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벨트로 꼭 조인 재킷, 짧은 스펀서 재킷, 훌쭉한 팬츠, 웨이스트를 조인 재킷, 등이 유행하였다<sup>28)</sup>.

90년대와 2000년에는 어깨의 넓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pad의 사용이 앞선 시대보다 적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재킷의 형태는 더욱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타났다. 미시족의 출현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활동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스포츠 칼라 재킷으로 허리선이 약간 들어간 길지 않은 재킷과<그림17>. 길이의 변화가 긴 것과 짧은 것, 베이직 한 것과 다양한 형태의 재킷들이 나타났다. 90년대 말 밀레니엄의 도래와 더불어 밝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무드의 패션이 부상하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패션경향은 사라져가고 장식적인 패션과 더불어 새로운 심플하지만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진다<그림18><sup>29)</sup>.

또한 단추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Blind jacket은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유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그림19>.

(2) collar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넓게 판 neck에 작은 sports collar와 stole collar가 1960년대 초까지 유행

하였으며, 특히 stole collar는 over coat에 많이 사용되었다.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turtle neck와 tie 사용이 많아졌고, 1966년에는 tailored collar와 no collar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에서 1973년까지는 shirts collar와 크고 넓은 sporty한 tailored collar가 많이 사용되었고 collar의 크기가 커졌다. 1974년에는 약간 커진 sports collar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는 가름해지고 작아진 tailored collar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대체적으로 collar의 형태를 보면 tailored collar가 변형되어가면서 많이 유행하였다<sup>30)</sup>.

80년대는 칼라가 없는 것과 넓은 tailored collar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형태의 칼라들도 넓고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와 2000년에는 tailored collar가 칼라의 라펠이 길어지고 슬림하며 윗 칼라가 좀 더 위로 달여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80년대의 칼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비대칭적인 모양으로 좌우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졌으며 아방가르드 한 형태의 판초나 케이프형 재킷과 차이니즈 칼라나 만다린 칼라의 사용이 빈번해졌다.

### (3) Sleeve의 형태와 길이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긴 소매의 set-in sleeve를 많이 입었고 1955년에는 dolman, raglan sleeve와 7부소매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 여름에는 cap sleeve와 sleeveless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특히 7부 소매는 196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였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는 1958년 Saint Laurant이 발표한 7부소매의 dolman sleeve의 영향으로 kimono sleeve가 유행하였다. 1966년에는 cuffs가 달린 긴 소매의 set-in sleeve가 소개되어 1970년까지 유행하였고 1971년에는 puff sleeve가 등장하여 1974년까지 유행하였다. 1975년에는 set-in sleeve에 어깨에 pad를 넣어 입었고 7부 길이의 drop shoulders sleeve가 소개되었다<sup>31)</sup>. 80년대에는 어깨에 pad를 많이 넣은 기모노 소매와 돌만 슬리브가 자주 나타나며 소매통이 넓어지고 부리는 좁아져 부드러운 어깨선을 가진 소매가 나타났다. 후반으로 갈수록 어깨는 각이 지고 소매부리도 넓어졌다. 90년대와 2000년에는 소매통이 좁아지고 길이가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길며 slim한 set-in sleeve가 많아졌다.

### (4) Waist의 위치

1940년대에는 195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본래의 허리선이 1955년에는 A line과 함께 high waist로 되었고, 1956년에는 H line과 함께 low waist로 되었다. 그 후 Y line과 empire line의 허리선은 1960년대에 원래의 허리선으로 돌아왔다. 1950년대의 상의는 약간 맞는 짧은 상의가 대부분이어서 허리선을 구분하기가 뚜렷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 상의는 box형으로 허리선의 위치가 모호해졌고 1962년에는 직선의 double 여밈의 상의와 1964년에는 Cardigan style로 역시 허리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에는 본래의 허리선이었다가 80년대에는 로우 웨이스트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허리선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후반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는 허리선의 위치가 내추럴하거나 위로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 IV. 요약 및 결론

한 나라의 복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 하듯이 우리나라 여성 상의(jacket)의 변화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실루엣을 보면 1945년 이후에는 밀리터리 스타일의 상의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박스형의 직선적인 실루엣이 주를 이루며 50년대에는 프린세스 라인의 부드러운 어깨와 허리가 강조되는 형태의 상의가 60년대에는 박스형의 재킷과 짧은 볼레로재킷, 70년대에는 박스형의 캐주얼한 상의가 80년대에는 어깨가 강조되는 빅 사이즈의 역삼각형의 실루엣이 1990년대에는 앞선 시대와 달리 패드의 사용이 줄고 후반에는 슬림한 스타일의 영향으로 어깨가 좁아지고 소매가 좁아지는 박스형태와 아워글래스형, 삼각형이 트렌드에 따라 다양하고 활동적이며 실용적인 상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collar의 형태에서 40년대와 50년대에는 군복형의 딱딱한 테일러드 칼라와 블라우스를 응용

한 듯한 작은 칼라가 60년대에는 칼라가 없는 것이 많았으며 70년대에는 스포티하며 넓적한 셔츠 칼라가 유행하였으며 80년대에는 테일러드 칼라나 다른 칼라들의 넓이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90년대에는 테일러드 칼라가 80년대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슬림하며 스포티하며 칼라의 너치(notched)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방가르드 한 형태의 비대칭적인 칼라와 목 위로 감싸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의 칼라 형태도 자주 나타났다.

셋째, Sleeve의 형태로 네 가지의 형태 변화 항목 중 가장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방 후에서 50년대 중반까지는 set-in sleeve를 많이 입었고 중반이후 60년대까지 dolman sleeve와 raglan sleeve를 많이 입었는데 특히 7부 소매는 196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puff sleeve가 등장하여 마치 비숍소매의 블라우스를 보는 듯한 소매의 형태가 유행하였다. 중반이후 drop shoulders sleeve가 나타났으며 80년대에는 어깨에 pad를 많이 넣은 기모노 소매와 돌만 슬리브가 자주 나타나며 소매통이 넓어지고 부리는 좁아져 부드러운 어깨선을 가진 소매가 나타났다. 90년대와 2000년에는 소매통이 좁아지고 길이가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길이의 소매가 보여지며 전체적으로 슬림한 소매가 많아졌다.

넷째, Waist의 위치는 1940년대에는 195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본래의 허리선이 1955년에는 A line과 함께 high waist로 되었고, 중반이후 low waist가 되었다. 1960년대에는 본래의 허리선으로 돌아왔다가 중반이후 허리선이 다양해 졌다. 1960년대 초반 상의는 box형으로 허리선의 위치가 모호해졌고 1962년에는 직선의 double 여밈의 상의와 1964년에는 Cardigan style로 역시 허리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1970년대에는 본래의 내추럴한 허리선이다가 80년대에는 로우 웨이스트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허리선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갔으나 후반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는 허리선의 위치가 내추럴하거나 위로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 재킷에 나타난 형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각 시대 별로 중요한 사회문화

적 현상과 서구에서 도입된 유행의 경향이 반영되어 상의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45년 이후에는 서구의 영향과 전쟁 전후의 상황으로 밀리터리 스타일이 지배적이었으며 1950년대 이후 서구의 유행 경향이 그대로 들어와서 유행의 흐름을 쫓아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상의의 형태도 각각의 유행 스타일에 맞게 실루엣과 구성요소가 변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짧은 미니스커트에 어울리는 직선적이고 짧은 상의가 많았다. 1970년대에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상의가 그 시대의 여성의 역할과 미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1980년대는 칼라의 넓이가 커지고 남성적인 상의가 1990년에서 2000년에는 각 시대별로 트렌드를 반영하여 그것에 맞게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방 후 부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서구의 유행경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으로 여성의 상의는 단지 서구에서 소개된 스타일을 그대로 입는 획일적인 유행인 반면에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캐주얼한 상의가 많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SFAA에서 시즌별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좀더 세분화되고 트렌디 한 상의(jacket)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상의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그 실루엣과 구성요소가 적절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흡한점으로 복식의 외적인 형태에 치중하다 보니 소재와 색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그에 관한 후속 연구가 있길 기대하여 본다.

## 참고문헌

- 1) 석주선 (1992). *전통생활의 미*. IBM, p.20.
- 2) 이은영 (1998). *복식의장학*. 교문사, pp.31-38.
- 3) Hamilton, J. A. (1987).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 theory for Clothing & Textiles" *C.T.R.J.* 6(1). Fall, pp.1-7.
- 4) 박길순 (1991). 한국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

- 친 요인 분석(1945~1990년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2001).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 및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9(2); 김애경, 김혜숙, 손경순, 최난성 (1977). 해방후 우리나라 여성양장의 30년사; 김성숙, 김은영, 이관영, 이춘화, 윤정신, 임숙, 홍계순 (1975). 유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양장과 서양의상의 비교 (1945~1973); 한정숙, 유숙희 (1997).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평가를 위한 의미 미분 척도개발. *복식문화연구* 5(4); 이숙희 (1978).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과정. 이화여대 가정대학. *의류직물연구* 8; 박길순, 서희영 (1991).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변천 연구 - 1953년부터 1988년 까지를 중심으로. *충남생활과학연구지* 4(1); 유수경 (1989). 한국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효숙 (1999). *자켓 패턴 메이킹 I*. 경춘사, p.머리말.
  - 6) 유수경 (1991). *여성복식의 변천*. 일지사, pp.251-259.
  - 7) 유희경 외6인 (2000). *우리옷 이 천년*. 문화관광부, pp.135-137.
  - 8) Ibid., pp.138-149.
  - 9) Ibid., pp.149-173.
  - 10) Ibid., p.174.
  - 11) 문숙재, 여운경 (2004). *소비자 트렌드 21세기*. 시그마프레스, pp.158-163.
  - 12) 유희경 외 6인 (2000). Op. cit., pp.133-134.
  - 13) 문숙재, 여운경 (2004). Op. cit., pp.160-165.
  - 14) 조선일보. 2000년 5월 12일.
  - 15) 라사라 교육개발원(2002). *패션용어사전(증보판)*. 라사라 패션정보, p.122.
  - 16) 이해영, 안현숙, 김선희 공저 (2001). *21세기 패션정보*. 일진사, pp.106-107.
  - 17) Ibid., p.107.
  - 18) 라사라 교육개발원 (2002). Op. cit., pp.122-142.
  - 19) 石山彰 (1998). *服飾意匠學*. 光生館. 和64, p.176. 을 복식미학이 이해. 김영자. 경춘사, pp.103-134에서 재인용.
  - 20) 임원자 (2003). *의복구성학*. 교문사, pp.52-83.
  - 21)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pp.118-120.
  - 22) 石山彰 (1998). Op. cit., p.131.
  - 23) 이숙희 (1978).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과정. 이화여대 가정대학. *의류직물연구* 8, pp.4-9.
  - 24) 유희경 외 6인 (2000). Op. cit., pp.135-181.
  - 25) 김애경, 김혜숙, 손경순, 최난성 (1977). 해방 후 우리나라 여성양장의 30년사, pp.59-61.
  - 26) 유수경 (1991). Op. cit., pp.249-314.
  - 27) 박길순 (1991). 한국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1945~1990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 28) 자료검색일. 2004. 11. 5. 자료출처 <http://www.designclass.or.kr/museum>
  - 29) 어패럴 뉴스. 1999년 9월 20일. 23면. 11번째 기사.
  - 30) 김애경, 김혜숙, 손경순, 최난성 (1977). Op. cit., pp.59-60.
  - 31) Ibid., pp.60-61.